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

이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00년 2월 25일에 개최된
'2000년 KEEI Energy Forum Seminar'의 발표자료임(편집자 주)

기존의 한국의 에너지정책

- 국가주도의 계획적인 자원배분
 -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초점
 -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독점적 공기업화 추구

기존의 에너지정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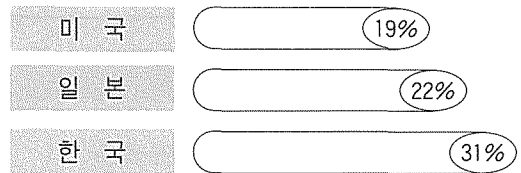
- 에너지다소비 사회·경제구조
- 에너지안보문제 심화
-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
- 비환경친화적 에너지소비유도
- 에너지원간 공정경쟁 저해
-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심화

에너지 다소비 사회·경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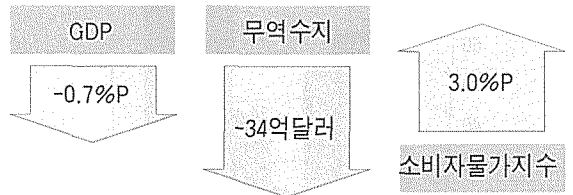
-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한 에너지 사용

인 구	4천 6백만명	(25위)
G D P	390조원(90년 불변)	(11위)
에너지소비량	165,932천TOE	(10위)
에너지소비증가율	10.2%(10년 평균)	(8위)
석유소비량	90,582 천 TOE	(6위)

■ 높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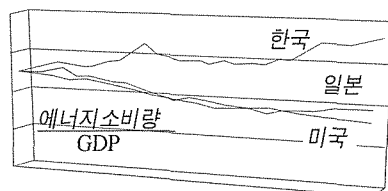
에너지 안보문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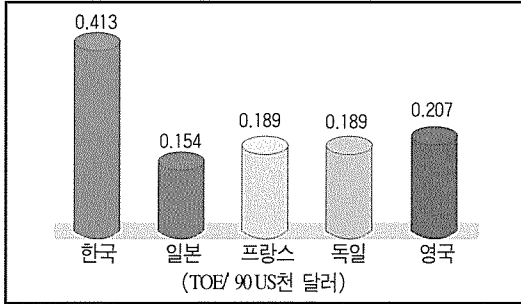
- 하반기 유가가 약 22달러에 이르렀을 때 국내경제는 GDP 0.7%P감소, 무역수지 34억 달러 감소, 소비자 물가 3.0%P상승할 것으로 분석 되었음.
- 원유가격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국제유가가 1달러만 올라도 연간 원유 수입액이 약 9억 달러 증가
- 원유수입의 75%정도를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지역에 의존하여 경기불안 상존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

- 각국의 GDP당 에너지소비량(1970=10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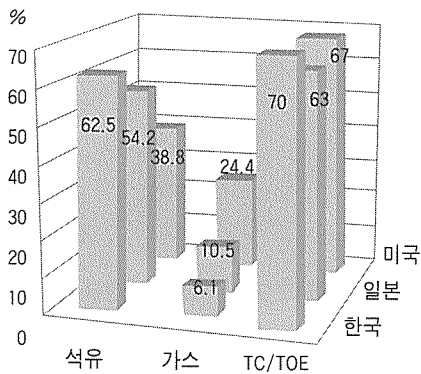


■ 높은 에너지 원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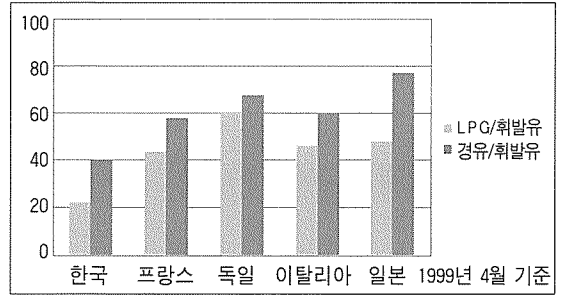
■ 비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

■ 에너지소비 당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 에너지원간 공정경쟁 저하

■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왜곡 심화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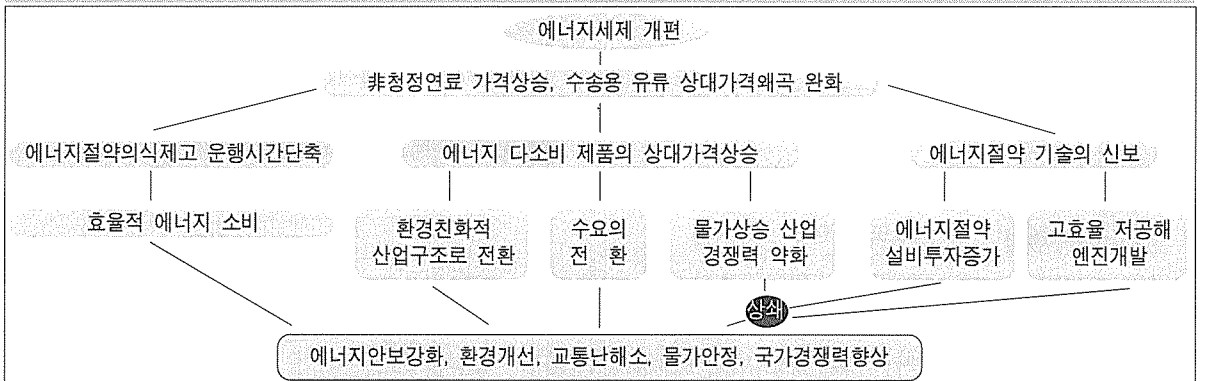
■ 고려사항

-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
- 에너지원간의 공정경쟁유도
-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를 내재화
- 개편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 에너지세제 개편의 방향

- 외부효과를 내재화, 투명한 과세기준의 확립
 - 열량/탄소세로 개편
 - 수송용 유류의 적정 상대가격을 위한 교통세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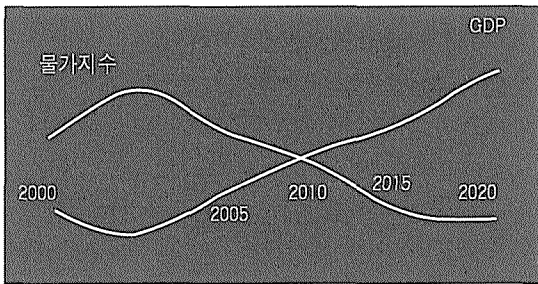
- 국민부담 최소화
 - 세목/세율 조정에 초점을 두어 기존 세수 유지
- 개편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 단기적으로 물가인상과 산업경쟁력 약화
 - 사전 예시제를 통해 단계적 개편
 - 세수환원제도 도입

■ 가격체계 개편이 미치는 영향(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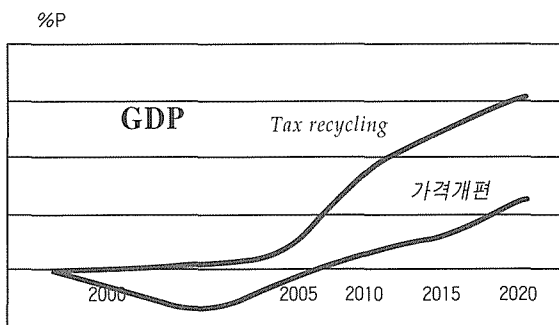
- 총 일차에너지 소비 감소
- 청정에너지 소비 증가
- 비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 감소



■ 가격체계 개편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Tax recycling제도 도입시 파급효과



■ 결론

- 고유가 및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시되는 시대에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시급한 과제
-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할 환경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
- Tax Recycling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물가안정, 산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에너지가격 개편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됨

용어해설

• 이모티콘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이다. 컴퓨터 키보드의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의 언어를 뜻한다. 이모티콘은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긴 문장까지 간단히 표현해낸다. 네티즌들끼리만 통하는 일종의 은어(jargon)로 해외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는 웃는 얼굴, <는 반대로 우울한 얼굴, *^는 씩씩하는 얼굴을 의미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b/cuz(because), cya(Seeya. 또 뵙시다), brb(Be right back. 곧 돌아올게요)등 문장을 알파벳 몇자로 축약한 경우도 많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어서 줄임말이나 철자법을 무시하고 소리나는 대로 표시하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이모티콘 때문에 기존의 언어양식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이모티콘은 번거로운 형식 대신 스피드를 지향하는 N세대들의 성향을 상징한다.